

수많은 언론을 통해 **Year’s BEST!** 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뮤지컬,

2012년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 상을 포함해 8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물들인 화제의 뮤지컬 <원스>가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음악으로 기억될 사랑의 순간 <원스>, 영화에서 뮤지컬로 다시 태어나다!**

뮤지컬 <원스>는 2006년 아일랜드에서 제작된 동명의 인디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영화 <원스>는 거리의 기타리스트와 꽃을 파는 체코이민자의 운명 같은 만남과 끌림의 시간들을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작품으로 창조해 내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음악적 감동에 뿌리를 둔 <원스>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장가 엔다월쉬, 연출 존 티파니, 음악 마틴 로우, 안무 스티브 호겟, 무대 디자이너 밥 크로울리, 조명 디자이너 나타샤 카츠 그리고 음향디자이너 클라이브 굿윈 등 최고의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드림팀에 의해 무대화 되었다.

2012년 3월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뮤지컬 <원스>는 독창적인 연출과 진솔한 스토리로 같은 해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상을 포함 8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그래미상, 드라마데스크상, 올리비에 상등 뮤지컬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상을 섭렵하는 등 평단과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오리지널 팀이 선사하는 단 6주간의 공연!**

뮤지컬 <원스>는 액터 뮤지션 뮤지컬로 이 작품의 감동은 오롯이 배우들에게서 나온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와 연기, 심지어 안무까지 소화하는 <원스> 배우들은 만능 엔터테이너, 진정한 예술가라 말할 수 있다.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화합과 에너지가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이며, 이들이 뿜어내는 기운으로 관객들이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본질이다. 바로 이 점이 뮤지컬 <원스> 내한 공연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다.

오는 9월 한국을 방문하는 뮤지컬 <원스> 공연 팀은 현재 이 작품의 고향인 더블린, 올림피아 극장에서 ★★★★’winning.. the music is the show’s trump card’ **‘사람의 마음을 끈다.. 이 공연에서 음악은 비장의 무기다.’** (The Irish Times), ★★★★’hysterically funny.. truly uplifting’ **‘미치도록 웃기다. 진정 행복하게 해준다.’** (Irish Daily Mail), ‘brilliantly adapted.. ingeniously staged.. hilarious**’** **뛰어난 개작, 독창적인 무대, 아주 재미있다.’** (Sunday times), ★★★★’noiser, bawdier and funnier than the film’ **‘영화보다 더 요란스럽고 외설적이고 재미있다.’** (Irish Mail on Sunday) 등 언론의 뜨거운 찬사와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더블린 공연이 끝난 후 한국을 찾는 뮤지컬 <원스>팀은 완벽한 하모니와 앙상블로 오리지널의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뮤지컬 <원스> 오리지널 팀 내한공연 개요**

* 공연장소 : 샤롯데씨어터
* 공연기간 : 9월 22일 ~ 11월 1일
* 공연시간 : 화-금 8시/ 토-일 2시, 7시, 월 공연 없음 (단, 9월 29일 5시 1회)
* 티켓가격 : V 130,000원 / R 110,000원 / S 80,000원 / A 60,000원
* 스 태 프 : 극본 **Enda Walsh (엔다 월쉬)**

음악 **Glen Hansard & Markéta Irglová**

**(글렌 핸사드 & 마케타 이글로바)**

원작 **John Carney (존 카니)**

연출 **John Tiffany (존 티파니)**

안무 **Steven Hoggett (스티븐 호겟)**

음악 수퍼바이저, 편곡 **Martin Lowe (마틴 로우)**

무대, 의상디자인 **Bob Crowley (밥 크로울리)**

조명디자인 **Natasha Katz (나타샤 카츠)**

**목차**

* **뮤지컬 역사상 획기적인 공연, <원스>**

1. 섬세한 스토리와 독창적인 연출

* 섬세한 스토리
* 연기, 노래, 춤 그리고 악기연주까지! 무대 위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배우들
* 관객들도 무대 위에서 즐기는 음악과 음료

1. 아름다운 음악의 승리
2.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의 새로운 세계를 열다

* **뮤지컬 <원스>는 어떤 작품인가**

1. 드림팀이 만들어낸 걸작
2. 뮤지컬 <원스>, 영화와 같은 성공의 길을 걷다

**<첨부내용>**

1. 배우 프로필
2. 수상 내역
3. 프레스 리뷰
4. 작가 Enda Walsh의 말

**뮤지컬 역사상 획기적인 공연, <원스>**

1. **섬세한 스토리와 독창적인 연출**

* **섬세한 스토리**

뮤지컬 <원스>는 브로드웨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아닌 아일랜드 인디 영화를 원작으로 한 것이 그 시작이다.

청소기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꿈은 거의 포기한 더블린 길거리의 가수와 꽃을 파는 체코 이민자, 이 남녀의 작은 만남으로 <원스>는 시작된다. 여자는 남자에게 우정으로 다가가고, 함께 하는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얻으며 서로에게 빠져들게 된다. 이 두 남녀의 소박한 러브 스토리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과 멋지게 만나 <원스>만의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 냈다.

<원스>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고,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가슴 속에 묻어 둔 잊혀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음악, 공감할 수 있는 인물 등 ‘기본’에 충실한 뮤지컬 <원스>는 관객들을 매혹시키고 감동까지 선사한다.

관객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좋은 이야기’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다. 결국 뮤지컬 <원스>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외로운 사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원스>가 사랑 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 **연기, 노래, 춤 그리고 악기 연주까지! 무대 위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배우들**

뮤지컬 <원스> 무대의 감동은 오롯이 배우들에게서 나온다. 무대 위의 모든 연주자들은 바로 배우다. 이처럼 뮤지컬 <원스>는 액터 뮤지션 뮤지컬로 등장인물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와 연기 심지어 안무까지 소화해야 한다. 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만돌린, 아코디언, 베이스, 드럼 등 16종류, 50여대에 달하며 한 배우당 평균 5개의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원스>의 무대에는 오케스트라도 지휘자도 없다. 배우들은 연기할 땐 배우로, 연기하지 않을 땐 연주자로 무대 위를 계속 떠나지 않는다. 배우들의 손짓, 노래의 가사, 특정 대사가 모두 서로의 연주와 노래의 큐가 된다. 배우들은 한 순간도 쉴 틈 없이 무대를 주시해야 하고, 배우들이 서로서로 던지는 아주 작은 싸인에 반응하여 곧바로 연주와 노래를 시작해야만 한다. 그야말로 <원스>는 만능 엔터테이너, 진정한 예술가가 필요한 뮤지컬이다.

* **관객들도 무대 위에서 즐기는 음악과 음료**

뮤지컬 <원스>의 독특한 구성 방식은 관객이 객석에 들어서는 순간 만나 볼 수 있다.

무대는 더블린의 한 술집, 공연이 시작되기 전 배우들은 기타와 아코디언, 만돌린과 첼로 등으로 즉흥 연주를 시작한다. 매일 매일 음악의 선곡은 달라진다. 관객들은 공연 전이나 인터미션에 무대 위로 올라가 바에서 음료도 마시고 배우들이 선보이는 즉흥 연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관객들과 배우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은 객석과 무대라는 벽을 완전히 없애고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 위의 배우들에 완벽히 이입되도록 만든다.

1. **아름다운 음악의 승리**

뮤지컬 <원스>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자 음악을 맡았던 글렌 핸사드와 마케타 이글로바가뮤지컬에 합류하며 이 영화를 사랑했던 많은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다.

뮤지컬 <원스>의 포인트는 바로 치유의 힘을 가진 ‘음악’을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관객들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얻는 것을 눈 앞에서 직접 지켜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원스>는 오케스트라 없이 12명의 배우들이 무대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한다.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음악은 뮤지컬에서 더욱 풍성한 화성과 화음으로 무대를 채워준다. 덕분에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와 노래로 영화 속 명곡 ‘Falling Slowly’ 는 물론, ‘If You Want Me’, ‘Gold’ 등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뮤지컬을 위해 새로 작곡된 곡들은 다른 곡들처럼 최면을 거는 것 같은 리듬과 환상적인 하모니로 어우러져 무대의 생동감을 더하며 극 전개를 도와준다.

1.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의 새로운 세계를 열다**

뮤지컬 <원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게다가 춤을 춰야 하는 배우들의 몸에는 그들이 연주해야 하는 악기가 함께 있어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뮤지컬 <원스>의 안무가인 스티븐 호겟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가능하게 했고, 더 나아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에 새로운 세계를 선사했다.

먼저 어느 노래에 안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확히 구분한 후, 특정한 환경 속에서 부르는 어휘 속에서 안무에 대한 힌트를 찾았다. 그리고 배우들은 악기를 몸에 지닌 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작으로 안무를 구성했다. 그 결과 뮤지컬 <원스>는 역동적이며 큰 제스쳐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와 차별화 된 단순한 움직임 또는 행위예술에 가까운 안무로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 냈다.

1. **최첨단 테크닉으로 만들어 낸 아날로그 무대**

뮤지컬 <원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객들은 수많은 거울이 달린 더블린의 한 소박한 술집을 마주할 수 있다.

무대 위에는 크고 작은 거울이 60여개가 달려 있다. 이 거울을 통해 관객들은 누군가의 얼굴의 일부분, 또는 기타를 치고 있는 손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거울은 공간과 사건을 작게 쪼개 보여주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박해 보이는 무대에는 여느 뮤지컬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 숨어있다. 그것은 바로 음향이다. 보통 뮤지컬에선 음향 효과 채널이 40개를 넘지 않지만 뮤지컬 <원스>에서는 86개의 채널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70개는 무선마이크 채널이다. 악기 별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위치를 찾아 관객 눈에 보이지 않게 무선 마이크를 달고, 배우들도 개개인 별 특성을 연구해 마이크를 최대한 숨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관객들 스스로가 펍 안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바로 관객들을 이 작품의 일부가 되게 만들기 위함이다.

**뮤지컬 <원스>는 어떤 작품인가?**

2006년, 매력적이며 색다른 아일랜드 영화 <원스>는 상영 시작과 동시에 극찬을 받으며 열렬한 팬 층을 형성했다. 20만달러 제작비로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인디 영화계에 길이 빛나는 기록을 남겼던 영화 <원스>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는 최고의 뮤지컬로 그 생명력을 이어가게 된다.

1. **드림팀이 만들어낸 걸작, 뮤지컬 <원스>**

음악 영화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받은 <원스>의 뮤지컬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연출 존 티파니와 극작가 엔다 월쉬는 <원스>의 뮤지컬 작업을 맨 처음 의뢰 받았을 때, 두 남녀의 심리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 <원스>의 단순한 플롯은 뮤지컬로 만들어지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출 존 티파니는 ‘음악’을 먼저 듣고 이 작품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극작가 엔다 월쉬를 설득했다. “딱 이틀만 해보자”. 그 48시간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뮤지컬 <원스>의 위대한 행보의 시작이었다.

뮤지컬 <원스>는 <아메리칸 이디엇>의 안무가 스티븐 호겟과 <맘마미아!> 음악감독 마틴 로우, <회전목마>,<아이다>로 토니상을 다섯 차례나 수상한 최고의 무대 디자이너 밥 크로울리와 <라이온 킹>,<아이다>의 조명 디자이너 나타샤 카츠 등 당대 최고의 크리에이터들이 합류하면서 점점 뚜렷한 형태를 갖춰 갔다. 블록버스터 뮤지컬에도 출중한 재능을 보였던 이 걸출한 스태프들은 뮤지컬 <원스>에 참여하면서 존 티파니의 지휘 하에 진정한 예술가의 면모를 보였다. 눈속임, 화려함을 일체 배제하고 <원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물량공세가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재능과 실력만으로 무대를 완성해갔다. 그 결과 <원스>는 우아하면서도 담대한 뮤지컬로 새롭게 탄생했다.

1. **뮤지컬 <원스>, 영화와 같은 성공의 길을 걷다!**

2011년 4월 아메리칸 레퍼토리 씨어터에서 초기 작업과정을 거친 뮤지컬 <원스>는 2011년 11월 비영리 단체인 NEW YORK THEATER WORKSHOP을 통해 관객들에게 소개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박스 오피스 기록을 깨며 2012년 1월 15일까지 연장 공연을 포함한 전 공연이 매진되었다. 그리고 2012년 3월 18일, 뮤지컬 <원스>는 단숨에 브로드웨이 무대로 진출하여, 같은 해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상을 포함 주요 8개 부문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에 주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상들을 거머쥔 <원스>, 천재적인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순수한 예술혼으로 완성한 이 작품은, 비평가들의 호평뿐 아니라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며 브로드웨이에서의 성공을 전 세계로 이어나갔다. 모든 성공한 뮤지컬들이 그러하듯 2013년에는 영국 웨스트엔드 공연으로 이어졌고 2014년 올리비에상 2개 부문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다.

**<첨부내용>**

1. **배우 프로필**

* **톰 파슨스 – 가이 (Tom Parsons – Guy)**

톰은 Mountview Academy of the Theatre Arts에서 교육을 받았다.

**공연**: <*Once* - Guy역 (더블린의Olympia Theatre, 멜버른의 Princess Theatre)>,  <*Jesus* *Christ Superstar -* Peter 역(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Arena World Tour), 오리지널 캐스트의 동일한 배역으로 2012년 첫 번째 Arena Tour도 참여>, <David Taylor연출의*Monkee Business*, Mark역 (Manchester Opera House)>, <*Avenue Q* - Nicky & Trekkie역 (Noel Coward Theatre, Gielgud Theatre, Wyndhams>, <*Mamma Mia -* Eddie & Sky 언더스터디 (Prince of Wales Theatre)>

톰은 최근 컨셉 앨범인 Bobby Cronin의 *Concrete Jungle*을 위한 콘서트에서 주연인 Guy로 참여하여 노래했다. (St James Theatre) 또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을 작곡해왔고, 많은 밴드에서 연주를 했으며, 수 많은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 **메간 리오든 – 걸 (Megan Riordan – Girl)**

메간은 New York University의 Tisch School of the Arts(BFA with Honours in Theatre)와 Trinity College Dublin(M.Phil in Irish Theatre and Film)을 졸업했다. 또한 그녀는 Making Strange Theatre Company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공연:** <*Once* - Girl역 (더블린의Olympia Theatre)>, *<Hedwig and the Angry Inch* (Dublin Fringe, Edinburgh Fringe, Adelaide Fringe, 1st Irish Festival)> *<Luck* (Dublin Fringe, Edinburgh Fringe, Adelaide Fringe, 1st Irish Festival)>, *<The Last Days of Judas Iscariot* (Making Strange)>, *<True Enough!* (Making Strange)>, *<You Remember the Stories You Wish Were True* (Making Strange)>, *<This is Not a Life* (Bedrock)>, <*The School for Scandal* (Abbey Theatre)>, <*My Name is Rachel Corrie* (Jim Culleton 연출)>, <*In Real Time* (Brokentalkers)>, <*The Goddess of Liberty*(Gúna Nua>,  <*Elevator*(Thisispopbaby)>, <*Human Child* (Collapsing Horse)>, <*Monster/Clock* (Collapsing Horse)>, <*Romeo and Juliet*(Second Age)>

**뉴욕 공연: <***Luck* (오프 브로드웨이, 59E59 Theaters)>, <*Four Saints in/Mexico* (Ruben Polendo 연출)>, <*transFigures* (Lear de Bessonet 연출)>, <*This Jungle of Cities* (오프 브로드웨이)>

**영화 & TV: <***Paddywhackery* (IFTA 노미네이트, TG4, Daniel O’Hara 연출)>, <*City of Ember>*, <Dead Cat Bounce의 *Work(* RTE 2)>, <*The Gift of the Magi*  (Hallmark)>,< *Sacrifice* Peter A. Dowling 연출, 개봉 예정) , 최근 Abú Media의 새 시대극인 <*Klondike* (Daithi Keane 연출)> 에서 주연을 맡아 촬영했으며, 이번 가을 TG4에서 방송된다.

* **피오나 브루스 – 바루스카 언더스터디 (Fiona Bruce – Understudy Baruska)**

프랑스의 Newcastle University에서 학위를 마친 후, 피오나는 런던의 Studio ‘68과 파리의 Ecole Jacques Lecoq에서 트레이닝을 이어갔다.

**공연: <***Once the Musical* (런던의 Phoenix Theatre)>, <*Mother Courage* - 주연(Watford Palace Theatre)>, <*The Waltz -* 주연,Camille Claudel 역(West Yorkshire Playhouse)>, <*Threepenny Opera –* Jenny 역(London Bubble Theatre)>, <*Richard III -* Queen Elizabeth 역(Illyria Theatre Company>, <*Boys’ Stuff –* Angie 역(Crucible Theatre Sheffield)>, <*The Mayor of Casterbridge -* Beth Cuxom 역 (첼튼엄의 Everyman Theatre)>, <*Oliver Twist -* Mrs. Bumble 역(Bolton Octagon)>, <*Playing for* *Time -* Olga 역(Salisbury Playhouse)>

**TV:** <Last of The Summer Wine>, <The Royal>, <Emmerdale>, <Where the Heart Is>, <Heartbeat>, <Prime Suspect>, <The Ward>, <Grange Hill>, <Taggart>, <Coronation Street>

**영화:** <Scot Free>, <Connected>, 그리고 최신작 <Fraternity – Margaret 역>

피오나는 Mad Dogs Theatre Company의 공동 창업자이고, 그 컴퍼니의 작품인 <*Casualties*>와 <*Mogs & Frogs & Doggy Tales*>에도 출연했다.

* **산드라 다우드 캘라핸 – 바루스카 (Sandra Dowd Callaghan – Baruska)**

산드라는 더블린에서 나고 자랐으며, Liverpool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현재는 BIMM에서 보컬 공부를 하고 있다.

산드라는 유명한 쇼밴드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피아노아코디언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아버지는 산드라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

청소년 시절까지 산드라는 케일리와 아코디언 밴드들에서 연주했다. 15살에는 그녀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후 베이스와 드럼, 그리고 피아노를 배워나갔다.

가장 최근에는 가스펠 합창단에 합류했다. 그녀는 합창단과 함께 Olympia Theatre와 Helix에서 솔로이스트로 공연했다. 산드라는 펍(pubs)과 플라(Fleadhs)에서 트래드 재즈의 잼 세션을 하며 지낸다.

* **제이미 카메론 – 뱅크 매니저 (Jamie Cameron – Bank Manager)**

제이미는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Classical Acting 석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Royal College of Music JD에서 교육 받고, 추후 The Royal Academy of Music에서 첼로를 전공으로 공부한,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멀티맨이다. 또한, King’s College London에서 음악 전공으로 First Class Honours Degree(1등급 학위)를 수여했다.

**공연:** <*Once* (더블린의Olympia Theatre)>, **<***Carmen Disruption* (Almeida Theatre)>, <*Once*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리지널 웨스트엔드 캐스트 (런던의 Phoenix Theatre)>, <*The Broken Heart>*, <*Arcadia* (RCSSD)>, <*Orpheus and Eurydice>*, <*Relish>*, <*A Midsummer Night’s Dream* (NYT)>, <*Anna Karenina* (Working Title Films)>, <*Rehearsed Readings* (런던의National Theatre)>

* **키어란 커닝햄 – 아버지&빌리 언더스터디 (Kieran Cunningham – Understudy Da, Billy)**

키어란은 Manchester Polytechnic School of Theatre에서 트레이닝 받았다. 그는 숙련된 연주자이며, 정기적으로 그가 만든 아이리쉬 밴드이자 수상경력도 있는 ‘Quare Craic’에서 연주한다.

**공연: <***Once the Musical* (런던의Phoenix Theatre)>, <*Our Day Out* (Oldham Coliseum)>, <*The Flags* (Liverpool Royal Court)>, <*Our Day Out* (Liverpool Royal Court)>, <*Kes* (Manchester Royal Exchange)>*, <The Flags* (Manchester Royal Exchange)>, <*Romeo & Juliet* (Manchester Royal Exchange)>, <*The Lost Warrior* (Dukes Lancaster)>, <*Someone To Watch Over Me* (Dukes Lancaster)>, <*The Birthday Party* (Contact Theatre Manchester)>, <*Red Balloon* (Contact Theatre Manchester)>, <*Aladdin* (Liverpool Everyman)>, <*The Quare Fellow* (Oxford Stage Company)>,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Southampton Nuffield)>

**TV: <***Hollyoaks* (Lime Pictures)>, <*Coronation Street* (Granada)>*, <Sometime Never* (Granada)>*, <Independent Man* (Granada)>*, <Pale Horse* (Granada)>, <*Thieftakers* (Granada)> <*Emmerdale* (Yorkshire TV)>, <*Shoot to Kill* (Yorkshire TV)>, <*Moveable Feasts* (BBC)>, <*The Street* (BBC)>, <*Shameless* (Company Pictures)>, <*Fair City* (RTE)>

키어란은 또한 그가 직접 쓴 <*At Large: The Life of Dave Allen*>라는 원맨쇼를 정기적으로 공연한다.

* **페일럼 드류 – 빌리 (Phelim Drew – Billy)**

**공연:** <Once (더블린의 Olympia Theatre)>; <The Risen People>, <King Lear>, <Drum Belly>, <Bookworms>, <Curse of the Starving Class>, <The Seafarer>,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 모두Abbey Theatre, 오리지널과 Roddy Doyle/ Bisi Adigun 버전; <The Three Sisters>, <The Crucible>, <A Doll’s House>, <The Shaughraun>, <Portia Coughlan>, <Heavenly Bodies>, <She Stoops To Conquer> - 모두 Gate Theatre, Abbey Theatre; <A Whistle In The Dark>, <The Rivals>, <The Wake>, <The Plough And The Stars> - 모두 Abbey Theatre, Gaiety Theatre; <The Corsican>, <Hubert Murray’s Widow> <Prayers Of Sherkin> - 모두 Abbey Theatre, Peacock Theatre; <Port Authority (Decadent Theatre Co.)>, <All That Fall (Pan Pan)>, <‘Tis Pity She’s A Whore (Siren Productions)>, <Two Rooms>, <The Focus>, <Operation Easter> - 모두 Calipso; <Sleeping Beauty (Landmark Productions)>; <Therese Raquin>, <Roughs For Theatre One and Two)>, <Present Laughter>, <Moon Light>, <Salome)>, <The Double Deale>, <Tartuffe>, <Pride and Prejudice>, <A Christmas Carol> - 모두 Gate Theatre; <The Life Of Galileo (The Almeida Theatre)>; <Love and a Bottle (Rough Magic)>; <The Brothers of the Brush (The Unicorn Arts Theatre)>; <A Midsummer Night’s Dream (Lyceum Edinburgh)>, <The Recruiting Officer (Lyceum Edinburgh)>, <Cheapside (Druid Theatre)>. 최근에는 그 자신이 각색한 Orwell의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a Show in a Bag Production)>과 Colin Reid가 스코어를 각색 작업한 <The Third Policeman>으로 투어를 돌았다.

**영화 & TV: <**Clean Break (RTÉ)>, <Val Falvey TD (RTÉ)>, <Making The Cut (RTÉ)>, <Ripper Street (ITV)>, <The Ambassador (ITV)>, <Sharpe’s Battle (ITV)>, <Angela’s Ashes>, <The Commitments>, <My Left Foot>

* **리사 폭스 – 엑스 걸프렌드 (Lisa Fox  – Ex-Girlfriend)**

리사는 Gaiety School of Acting을 졸업하였다.

**공연**: <*Once* (더블린의 Olympia Theatre)>, <*She Stoops to Conquer* (The Abbey Theatre)>, <*The Hunt for Red Willie* (Smock Alley Theatre)>, <*Bombshells* (National tour)>. 리사는 현재 John Morton (Devious Theatre)과 함께 Rough Magic의 지원을 받고 Sarah Baxter가 연출하는<*Taboo*> 라는 연극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영화 & TV**: <*The Beo Show* - Gerty Gúna 역 (RTÉ)>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던 청소년 시절, 그녀는 바이올린으로 Leinster Championships에서 챔피언쉽을 2회나 수상 하였다.

* **헬레나 굴란 – 레자&엑스걸프렌드 언더스터디 (Helena Gullan – Understudy Reza and Ex-Girlfriend)**

헬레나는 로스앤젤레스의Lee Strasberg Theatre and Film Institute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연기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또한 그녀는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에서 합창단 장학금을 받으며 Drama and Music 코스를 졸업했다. 그 이전에는 Trinity College of Music에서 바이올린과 보컬을 전공했다.

**공연: <***Once the Musical* (런던의 Phoenix Theatre)>,<*Coram Boy* 에서 무대 위 코러스 (National Theatre 의Olivier Theatre)>, <*The Snow Spider* - Eirlys 역 (Tristan Bates Theatre, UK tour)>, <*HMS Pinafore –* Hebe 역 (Charles Court Opera)>, <*Ruddigore –* Ruth 역 (Charles Court Opera)>, <*What It Feels Like* – 앙상블 (Wimbledon Studio Theatre, Edinburgh Fringe Festival)>, <*Rent* – Maureen 역 (LSTFI)>, <*Legally Blonde* - Vivienne 역 (LSTFI)>

그녀는 Hyperion과 Naxos와 같은 레이블의 전문적인 레코딩에 기여했으며, 이 밖에도 수 많은 라디오와 TV 방송에도 참여하였다.

* **제프 해머커 – 뱅크 매니저 언더스터디 (Jeff Hamacher – Understudy Bank Manager)**

**공연: <***Once the Musical* (토론토)>

음악학 학사 (UWO), 교육학 학사 (Windsor), 교육학 석사 (Queen’s)를 수료한 제프는 9살에 첼로를 시작하였고, 16살부터는 개인 레슨을 받았다. 2006년부터 그는 캐나다에서 첼로와 기타를 개인 레슨해주는 선생님이자, 프리랜서 뮤지션으로서 Kingston Symphony (첼로), Melos Early Music Ensemble (principal 첼로와 비올라다감바), Limestone Trio(첼로), 그리고 음악 목회자로서 Our Lady of Lourdes Parish (첼로, 기타, 보컬) 에서 연주했다. 그는 Thousand Islands Playhouse에서 <*Anne & Gilbert*>, <*Les Misérables*>, <*She Loves Me*>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덕션에서 오케스트라 밴드로 연주해왔다. The Gertrudes, Buffalo Tree, Danielle Lennon 그리고 Ryan Lewis와 같은 캐나다 아티스트들의 음반에서도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 **브렌트 힐 – (Brent Hill)**

2008에 WAAPA 졸업 후, 브렌트의 공연 크레딧은 다음과 같다.

**공연:** <Once the Musical 멜버른 공연(GFO Attractions Pty Ltd)>, <*The Speechmaker* (Melbourne Theatre Company)>, <*DreamSong* (Red Heifer Productions)>, <*Pirates of Penzance* (The Production Company)>, <*A Number* (Perth Theatre Company)>, <*Gaybies (*Middsumma Festival Inc.)>, <A Funny Thing Happened on the Way to the Forum (Gordon Frost Organisation)>, <The Producers (The Production Company)>, <Rock of Ages (Australian premiere, 이 공연으로 Green Room Award 수상)>, <Risky Lunar Love (504 Producers)>, <Twelfth Night (Bell Shakespeare Company)>, <Julius Caesar (Cry Havoc)>, <Summerfolk (Bob Presents)>, <The Distance from Here (Griffin Theatre)>

**TV:** <Laid>, <It’s a Date>

그는 최근 Amy Lehpamer와 함께 <Donnatelegrams> 제작으로 ABC Fresh Blood에서 상을 받았다. 브렌트는 2009년 National Theatresports Team Champion Prize를 수상했고, 또한 2005년 Actors Equity Guild Award (배우조합시상식)에서 Best Newcomer (최우수 신인상)상을 수상했다.

* **마이클 마호니 – 엠씨 (Michael Mahony – Emcee)**

마이클은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연기학 석사)에서 트레이닝 받았다. 또한, NUI Maynooth와 Queen’s University Belfast에서 음악을 공부하였다.

**공연:** <*Once* (더블린의 Olympia Theatre)>, <*Yarico – The Musical* (London Theatre Workshop)>, <*The Greene Card* (런던의 The Space)>, <*The Commune* (RCSSD)>, <*Blue Stockings* (RCSSD)>, <*Ciaran’s Aisling* (Smock Alley Theatre – Boys School)>, <*Tír na nÓg*(Powerscourt Theatre)>, <*A Play For Bad Actors* (The Back Loft)>, <*Ourselves Alone* (Samuel Beckett Centre, Players Theatre)>, <*Spring Awakening*(Everyman Palace Theatre/Granary Theatre)>

* **빌 머피 – 다 (Bill Murphy – Da)**

빌은 최근 호주에서 시간을 보낸 후 아일랜드로 돌아왔다.

**공연:** <*Once* (더블린의 Olympia Theatre)>; <*The Threepenny* *Opera*>, <*Sweeney Todd*>, <*A View from a Bridge*>- 모두Gate Theatre; <*MacBeth* (Second Age)>; <*Beauty and the Beast*>, <*Jack and the Beanstalk*>, <*Aladdin*> - 모두 Gaiety Theatre; <*The Plough and the Stars* (런던의 Abbey Theatre, Barbican)>; <*A Christmas Carol* (Irish tour)>; <*Annie*(Tivoli Theatre)>; <*Moll* (Andrews Lane Theatre)>

**영화 & TV:** <*Titanic – Blood and Steel*>, <*Outlaw Concy Ryan*>, <*The Cabin*>, <*Jack Taylor*(The Guards)>, <*If I should fall behind*>, <*Legend>, <Fallout*>, <*On Home Ground*>, <*Family*>,<*Dance with the Devil*>, <*Beauty of Darkness*> - 모두RTÉ; <*Savage>*, <*Spacejacked*>, <*My* *Brother’s War*> - 모두Showtime USA); <*Criminal Affairs* (HBO)>; <*Not Afraid*, *Not Afraid>*; <*Ordinary Decent Criminal>*, <*Fair City -* Nick Barrett 역>

* **리키 오닐 – 스벡 (Rickie O’Neill – Svec)**

메이요 출신의 리키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9살 때 드럼에 재능을 발견하였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활발히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10대를 여러 그룹에서 연주하며 보낸 그는 2011년에 The Saw Doctors라는 밴드에 드러머로 전격 발탁되었다. The Saw Doctors에 합류한 이 후, 리키는 미국, 영국,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 투어를 다녔다.

**공연: <***Once* (더블린의 Olympia Theatre)>, <*Much Ado*about*Nothing* - Conrade 역 (The Iveagh Gardens, A Fortune’s Fool Productions)>, The Wild Shamrock Touring Theatre와 독일 투어(29일 이상, 34회의 공연)

**영화 & TV**: 리키의 TV 데뷔는 2012년 맥도날드 광고였다. 그는 향후 2년간 방송 될 Electric Ireland for the Minor Championships에서 목소리 더빙을 했다.

* **딜란 레이드 – 안드레이 (Dylan Reid  – Andrej)**

딜란은 공연예술 전공으로 Northwest Regional College를 졸업했으며, Foyle school of Speech and Drama에서 Grade 8을 이수했다.

**공연:** <*Once* (더블린의 Olympia Theatre)>; Dylan has played the role of ‘Oliver’ on numerous occasions, including a special performance for Queen Elizabeth II during her visit to his hometown of Derry city. 딜란은 퀸 엘리자베스 2세가 그의 고향인 데리에 방문했을 때의 특별 공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Oliver’ 연기를 하였다.

**뮤지션:** 딜란은 Linda Martin과 Stuart O’Connor가 창설한 Syng Street라는 밴드의 멤버이다. 현재는 그 스스로 음악을 작곡하여 솔로 앨범 레코딩 작업을 하고 있다. 딜란은 최근 Marie Keating Foundation과 The Foyle Hospice의 후원을 위해 싱글 차트인 Walk With Me를 발표하였다.

* **루스 웨스틀리 – 레자 (Ruth Westley – Reza)**

루스는 Manchester Metropolitan School of Acting에서 공부하였다.

**공연: <***Once the Musical* (더블린의 Olympia Theatre, 런던의 Phoenix Theatre)>; <*Beyond Belief*>,<*The Wind in the Willows*>,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Rock n’ Roll>* - 모두Manchester Library Theatre; <*Lark Rise to Candleford* (New Perspectives)>; <*Far From the Madding Crowd*(English Touring Theatre)>; <*The Double*(케닝턴의 Theatre6 / White Bear)>; <*X*(Fireraisers Theatre Company)>

**영화 & TV: <***Emmerdale*>

* **토마스 울스턴홈 – 이몬 (Tomas Wolstenholme – Eamon)**

**공연 및 작품**: <Once the Musical (런던의 Phoenix Theatre)>, <Alba>, <Transform Caithness: Hunter>, <Be Near Me>, <Nobody Will Ever Forgive Us>, <The Bacchae>, <Black Watch - Laurence Olivier Award 와 Critics’ Circle Award에서 Best Director상 수상작>, <Elizabeth Gordon Quinn>, <Home: Glasgow>, <Jerusalem (West Yorkshire Playhouse)>, <Las Chicas del Tres y Media Floppies (멕시코시티의 Granero Theatre, Edinburgh Festival Fringe)>, <If Destroyed True>, <Mercury Fur (Paines Plough)>, <The Straits (Paines Plough)>, <Gagarin Way>, <Abandonment>, <Among Unbroken Hearts>, <Perfect Days (에든버러의 Traverse)>, <Passing Places (에든버러의 Traverse)>

1. **수상 내역**

* **2012 TONY AWARDS**

BEST MUSICAL (최우수 뮤지컬상)

BEST DIRECTION (연출상) - John Tiffany  
BEST ORCHESTRATIONS (편곡상) - Martin Lowe  
BEST BOOK OF A MUSICAL (극본상) - Enda Walsh  
BEST SCENIC DESIGN OF A MUSICAL (무대디자인상) - Bob Crowley  
BEST LIGHTING DESIGN OF A MUSICAL (조명디자인상) - Natasha Katz  
BEST SOUND DESIGN IN A MUSICAL (음향디자인상) - Clive Goodwin

BEST ACTOR IN A MUSICAL (남우주연상) - Steve Kazee

* **2012 GRAMMY AWARD**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

* **2014 LAURENCE OLIVIER AWARD**

BEST ACTRESS IN A MUSICAL (여우주연상) - Zrinka Cvitešić

OUT STANDING ACHIEVEMENT IN MUSIC (음악상) - Martin Lowe, Glen Hansard & Markéta Irglová

* **2012 DRAMA DESK AWARD**

Outstanding Musical

Outstanding Director of a Musical - John Tiffany

Outstanding Lyrics - Glen Hansard and Markéta Irglová

Outstanding Orchestrations - Martin Lowe

* **2015 더 뮤지컬 어워드**

여우주연상 – 전미도

1. **프레스 리뷰**

**YEAR’S BEST! *–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Entertainment, metro, USA TODAY, DAILY NEWS, THE HUFFINGTON POST, The Hollywood REPORTER***

올해의 BEST!

**The most beautiful thing I’ve ever seen on a stage, hands down. *– The New York Times***

여태껏 무대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다, 분명히.

**Once uses song and dance in a way I’ve never experienced in an american musical. *– The New York Times***

원스는 이제껏 미국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과 안무를 사용한다.

***★★★★★! The most romantic show on broadway.* - *DAILY NEWS***

★★★★★!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로맨틱한 공연

**Downright revolutionary! – New York Post**

참으로 획기적인 공연이다!

**An exquisite reminder of theater’s singular capacity to transport us. -*The Hollywood REPORTER***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나게 만드는 작품의 특이한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One of the best things to happen to Broadway in the last decade. *- The Hollywood REPORTER***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고의 공연이 브로드웨이에 나타났다.

**Pure, moving, inventive, and irresistible.- ap**

순수하고, 감동적이고, 독창적이고, 너무나도 매혹적이다.

**★★★★★! Heart-stopping and enthralling. *-THE HUFFINGTON POST***

★★★★★! 심장이 멎는 듯 하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1. **작가 Enda Walsh의 말**

영화 <원스> 속 이야기는 너무나 섬세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흠모하는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빠르게 당신 안에서 자라나 당신의 마음을 훔칩니다. 또한 절제된 표현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화 <원스>를 무대화 하는 작업은 사실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가진 소박함에 결국 설득되고야 말았습니다.

극 (Theatre)은 매우 탄탄한 구조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등장 인물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작품의 형태와 언어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온전히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등장 인물을 정해 놓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세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등장 인물의 이야기를 쓰게 되죠. 영화에서 ‘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뮤지컬에서는 매우 적극적 인물이 되어 이야기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모든 일이 시작 됩니다. 우리를 5일 간의 행보로 이끌고 한 음악가에게 새 삶을 주고 예기치 않게 그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활기에는 열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랑 이 담겨있습니다. 이 점이 영화를 그토록 멋지게, 달콤 쌉싸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직 끝나지 않는 사랑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도 역시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우울한 사랑의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배우들이 더 솔직히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음악이 스토리텔링의 중심에 놓일 수 있기를, 배우들이 뮤지션의 역할도 할 수 있기를 늘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바랐던 것은, ‘걸’이 그녀 주위의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5일 동안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준 빛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 즈음이면 우리는 등장 인물들과 오롯이 하나가 됩니다. 저는 러브 스토리 뿐만 아니라 보여지고 전해져야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능력, 그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러브 스토리를 그들의 방식으로 기타와 다른 악기로 통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 낸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것, 진정한 앙상블이 이 무대 위에 있습니다.